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에 관한 대담



아우구스토 에이 림 장로,
제 1보좌



벤 비 뱅크스 장로,
회장



케네스 존슨 장로,
제 2 보좌

미크로네시아에서 교회가 번성하고 있다. 총 2200여 개에 달하는 도서들로 이루어진 이 지역은 총 육지 면적은 아주 작은 편이지만 규모면에서는 유럽보다 더욱 넓은, 광활한 태평양에 널따랗게 흩어져 있는 곳이다. 또한 필리핀에서도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공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회가 이전에는 쉽게 닿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그 지역에서의 교회 정세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아보고자, 편집인들이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벤 비 뱅크스 장로와 역시 칠십인 정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의 두 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아우구스토 에이 림 장로와 케네스 존슨 장로와 함께 대담을 가졌다.

질문 미크로네시아에서의 교회의 성장은 어떻습니까?

대답 복음의 영향은 마살 제도 공화국, 미크로네시아 연합국, 팔라우 공화국, 괌 영토, 북 마리아나스 연방국가, 여러 국가령의 군소 도서 등을

포함하는 여러 도서 지역에 더욱 빠르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에게서 9개의 지방부와 40개의 지부가 이들 섬에 퍼져 있으며, 총 회원 수는 8,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섬들 중 상당 부분에 교회가 잘 알려져 있고 더욱 더 많은 지부들이 집회소를 건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 광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광범위하게 뻗쳐진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의무를 아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회가 성장을 계속하면서 어떠한 장애에 부딪치고 있습니까?

대답 미크로네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종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심한 적대감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적의에 부딪침으로써 오히려 우리 회원들의 간증이 실제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크로네시아의 많은 회원들도 특히 술과 담배를 위시한 지혜의 말씀을 지

키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도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종자를 교회에 계속 남게 하며 성장에 발맞춰 지도자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 이 지역에 있어서 교회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여하튼 이 섬들의 토속 문화는 대부분의 경우 복음의 원리와 잘 들어맞는데, 특히 강한 가족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크로네시아인들은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지도자를 존중하고 잘 따릅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질문 필리핀에서의 교회 성장은 어떻습니까?

대답 지난해, 우리는 공보 분야에서 몇 가지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공보를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부부 선교사의 활약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필리핀에 공보부 전담 사무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종류의 전국지의 정규 주례 기고란에 공보 담당 선교사들이 가족을 주제로 투고한 글이

게재되고 있으며, 교회가 한 주요 라디오 방송국에 제공하는 3시간 짜리 방송 프로그램이 매 일요일마다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약 216개에 해당하는 유선 방송국들이 또한 각기 자사의 시청자들에게 교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해 9월에 열리는 전국 가족 화합의 주간 행사의 주요한 참여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필리핀의 대통령 피델 브이 라모스 내각의 한 각료가 이끄는 운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가족 역사 및 건강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점가에서는 우리가 도심지의 반대편에 있는 다른 상점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선 우리에게 전시회를 열어 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도시에서는, 그 도시의 모든 경찰 병력이 한 말일성도 집회소에 와서 부부 선교사들로부터 심폐 기능 소생 처치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공보 담당 선교사들이 교회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저작물을 대략 80명 가량의 신문잡지 기자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 기자들은 처음에는 아주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긍정적인 논평까지 해주었습니다. 교회의 가치관이야말로 바로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 이러한 공보 활동의 성공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까?

대답 그처럼 짧은 시간에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필리핀 전역에 걸쳐 와드, 지부, 스테이크 및 지방부의 회원들이 지역 공익 지도자나 봉사 단체들과 보다

긴밀한 협조 아래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최근 교회가 방송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기회 덕분에, 복음이 더욱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과거에 선교사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었던, 중무장된 벽지에 살기에 문자 그대로 '접근 불능'이었던 많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중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을 수 있기를, 즉 힘과 지도력을 갖춘 새로운 회원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삶이란 여전히 고달픈 것입니다. 자연 재해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문에서는 주요 기사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미크로네시아로부터 동쪽 끝까지 이르는 전역에 걸쳐 가난이 만연해 있지만,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한 편입니다. 이에 반해서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영양 실조에 걸려 있을 정도로 필리핀인들이 겪는 가난은 혹독합니다. 몇 해 전에 필리핀에서 화산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 회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기만 하면 아직도 화산재가 씻겨 내려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필리핀인 회원의 경우 자신의 집을 세 번이나 다시 지어야만 했습니다. 멋있던 저택에서 겨우 기둥 하나 세운 움막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희망조차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화산재가 9 미터나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매우 쾌활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높은 교육 수준과 낮은 문맹률은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이며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합니다. □

미국 이외 지역의 회원 수, 미국 내의 회원 수를 넘어서다

지난 2월, 교회는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지났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 수가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 수를 초과한 것이다.

공식 통계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2월 24일 현재로 교회 회원 수가 9,438,00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가운데 약 4,719,000명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비슷한 수가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바로 그 다음날에는 높은 증가율로 인해 미국 이외 지역의 교회 회원 수가 미국 내의 교회 회원 수보다 더 앞서기 시작했다.

교회 관리 정보 시스템부 부장인 더블류 래리 엘킹턴 형제는 통계 보고에 의하면 미국 이외의 지역의 연간 성장율이 약 6퍼센트에 달하며 미국 내의 성장율은 약 2퍼센트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월 25일을 기점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회원 수는 이전의 균형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30년에 뉴욕 주 페이테에서 6명의 회원으로 시작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이제 약 156 개국 및 령(領)에 2,100개 이상의 스테이크와 700개 이상의 지방부, 300개 이상의 선교부 및 22,500개 이상의 와드와 지부가 있다.

1999년쯤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교회 회원보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 회원이 더 많아질 전망이며, 2012년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지역 관리 역원 정부 요직에서 일하다

구윤성 형제

북 아시아 지역의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는 법의 치과학 권위자이다. 여러 대형 사고를 통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에 관련하여 이름을 떨친 아주 유명한 인사이다.

김 장로는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인정 받아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장이라는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이 연구소는 미 연방 수사국과 유사한 기관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사법 당국이나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진위를 평가하고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한다. 또한 법의학 검사를 다루며 방화나 자동차 사고 등의 수사를 지원하는 한편 신체 검증을 돕는다.

치과 의사인 김 장로는 법의 치과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으며 이에 관한 많은 논문들을 국제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 왔다.

그는 한국에서 발생했던 몇 차례의 대형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당시로서는 역사상 그 전례가 없었던 1971년의 참혹한 대연각 호텔 화재를 수사하는 일을 도왔으며, 1987년에는 여객기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신원을 검증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는 또한 16년 전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려는 정부의 무력에 항거하다 일어난 광주에서 학살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신원을 밝혀 냈다.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 장로는 사망자가 무려 500명 이상 발생한 삼풍 백

화점 붕괴 사고에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을 지휘했다.

이렇듯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서도, 김 장로는 자신이 대학교 교수라는 지위에서 정부의 중요 직책에 발탁되었다는 소식에 놀랐었다. 한국 최대의 사립 학교인 연세 대학교 치의대 교수였던 김 장로는 정부의 직책 때문에 학계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다행스럽게도 정부 시책의 변화로 인해 그는 교수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장로는 서울 대학교 치의대를 졸업할 때에 학장상을 받았다. 졸업 후 계속해서 서울대학교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에서 법의 치과학을 공부했다.

그는 1941년에 태어났으며, 한국이 일본에서 해방된 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또한 그는 한국에 있어서 일세대 말일성도 회원이기도 하다.

1957년 어느 봄날, 그는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외국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교회의 선교사들이었다. 처음에는 수줍음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지 못했으나, 집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던

집회소에 초대되었다. 그가 교회 건물에 난생 처음 들어갔을 때, 상호향상회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후, 김 장로는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 원리를 공부했으며 교회에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침례를 받지 못했다. 삼 년간을 기다린 후 18세가 되던 1960년에 그는 마침내 침례를 받았다.

그는 교회의 여러 직책에서 봉사하였으며, 현재 칠십인 정원회 회원인 한인상 지부장으로부터 주일학교에서 복음 교리반 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적도 있다.

1973년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감독들 중 한 사람으로, 그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스펜스 더블류 김볼 장로에 의해 성임되었다. 그후 7년 간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을 하도록 준비시켰다.

그 후 김 장로는 스테이크 부장단 일원, 선교부장단 보좌, 지부장, 장로 정원회 회장, 주일학교 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에 교회 교육 기구가 설립된 후, 몇 년 간 시간제 강사로 봉사하기도 했다. 그가 가르쳤던



국립 과학 수사 연구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종열 장로

많은 학생들은 후에 감독, 스테이크 부장, 상호부조회 회장, 초등학교 지도자 및 다른 여러 직책의 교회 지도자로 성장했다.

1973년에 반 연차 대회 참석차 유타를 방문한 동안 그는 프로보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1985년 한국 서울 성전이 헌납되자, 그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다. 그 중 하나는 여행의 제약으로 인해 이전에는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그의 아내 홍영숙 자매와 함께 성전에서 인봉된 것이다. 서울 성전이 헌납된 때부터, 김 장로와 그의 부인은 함께 성전에서 의식 봉사자로 계속 봉사를 해오고 있다.

김 장로는 1993년에 서울 지역 담당 지역 대표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 직책에서 봉사하던 중에 작년에 지역 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았다.

그가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동안, 교회 또한 한국에서 많은 성장을 했다. 그가 침례를 받았을 당시에는 단 4개의 지부와 200여 명도 안되는 회원 밖에 없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16개의 스테이크, 5개의 지방부, 그리고 4개의 선교부와 함께 65,000여 명의 회원이 있다.

김 장로는 여러 가지 많은 부름을 받아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기쁨을 표시한다.

이제, 공인으로 정부의 중요한 직책에 부름 받아 봉사하는 말일성도로서 김 장로는 조국에 평등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의 열망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 관리 역원으로서의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부름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

(이 기사는 1996년 3월 9일자 처치 뉴스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임)

교회 어린이 미술 전시회

교회는 전세계의 5세부터 11세까지의 말일성도 어린이들에게 솔트레이크 시티의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에서 갖게 될 특별 전시회를 위해 미술 작품을 출품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 전시회의 주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말일성도 개척자들"이다.

이 전시회는 말일성도들이 1847년에 처음 유타 주의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온 지 150년이 되는 1997년에 갖게 될 1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게 된다고 전시회 조직 국장인 마릴린 크리스 클라크 자매는 말한다.

그러나 전세계 어린이들은 마차와 손수레 그림만을 그리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란다. 자기 나라의 말일성도 개척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작품이거나 미래의 말일성도 개척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예견해 보는 작품이라도 좋다.

클라크 자매는 어린이들이 온갖 분야에서 개척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교회 회원들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개척자는 한 명의 유명 인사, 한 집단이나 가족, 심지어는 미술 작품을 출품하는 어린이 자신일 수도 있다. 대도시 뿐만 아니라 소도시나 깊은 시골 마을에도 말일성도 개척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교회가 여러분의 나라에 완전히 조직되기 훨씬 이전에 교회에 개종한 회원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들이 모두 개척자들이다.

출품할 작품은 규격이 36x28센티미터를 넘지 않는 도화지에 그린 그림이어야 한다. 그림의 종류는 연필이나 크레파스나 수채화 물감이나 파스텔이나 목탄이나 유화 물감이나 기타 미술 재

료를 사용하여 그린 태생이나 수채화나 유화 또는 콜라주 등, 어떤 것이든 상관 없다.

단, 그림은 종이의 앞면에만 그려야 하며, 뒷면에는 그림을 그린 어린이의 성명과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나 지방부)의 명칭을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어린이는 그 뒷면에 자신이 그린 개척자의 성명과 그들이 생존했던(또는 살고 있는) 때를 적어야 하며, 왜 그를(또는 그들을) 개척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작품을 아래의 주소로 직접 우송하여 접수시킬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배부 센터를 통해 솔트레이크시티로 보낼 수도 있다.

직접 보낼 경우의 주소:

The Museum of Church History and Art,
45 North West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미술 작품은 1996년 10월 25일까지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이나 지역 배부 센터에 접수시켜야 한다. 모든 미술 작품은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이 소장하게 되며 반환하지 않는다.

상상력과 창작력이 가장 뛰어난 작품 약 300여 점을 선정하여 1997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1993년에 처음 열린 어린이 미술 전시회의 경우에는 전세계로부터 2,600점 이상의 작품이 쇄도한 바 있다. 전시를 위해 선정되었던 300여 점 가운데 일부가 1993년도 9월호 성도의 벗에 실려 있다. □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

청주 스테이크

긴 겨울이 끝나 가고 봄을 맞이하여 1996년 전반기 청주 대회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샘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의 감리하에 교리와 성약 82편 14절을 대회 주제로 개회되었다.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시마부꾸로 장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신권 부름의 중요성”과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헌신을 요구하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 스테이크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송이 함께했던 일요일 총회에서 황충열 스테이크 부장은 교리와 성약 101편 20, 21절을 인용하여 성도들이 집합할 곳은 주님이 지정한 장소인 스테이크라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며 모든 성도들은 스테이크의 경계를 넓히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새로운 개종자인 김명재 형제(삼성 와드)와 청남인 이의섭 형제(북대 와드)가 감동적인 간증을 전하여 좋은 느낌을 주었다. 이날 대전 선교부의 홍병식 선교부장은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도와주길 부탁하며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대해 말씀을 했다. 시마부꾸로 장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간증과 격려를 해주었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에는 550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였으며, 두 명의 형제가 장로로 지지되었고, 스테이크 보조 조직의 일부가 개편되었다. 대회 동안 중부 신학원의 학생회에서 안내를 하여 대회가 질서 정연한 가운데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안양 스테이크

지난 3월 9일과 10일 양일간 안양 스테이크에서는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주께서 너희를 선으로 인도하시겠음이라. 네가 밤에 누울 때 주님과 함께 하면 잠자고 있을 동안 주께서 너를 살피 주실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너희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할진대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라.”(엘마서 37:37)를 주제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를 감리자로 모신 가운데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회되었다.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소렌슨 장로는 “교회의 사명”과 더불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며, 청소년은 침례를 받은 후 합당하다면 10일 이내에 신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독신 성인들도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도록 잘 준비하도록 권고했다.

같은 시간에 소렌슨 자매가 참석한 가운데 이영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열린 여성 대회에서는 초동협회, 청녀회, 상호부조회 역원들이 참석하여, 각 조직의 특성, 장점 및 다른 조직에 바라는 점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소렌슨 자매는 잘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원의 계획’에 대해 명확한 원리를 가르쳐 주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소렌슨 장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과 간증을 가져야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다음날의 일요일 총회에서는 최근에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양길숙 자매와 서유미 자매가 “선교 사업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며 선교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확신과 간증을 나누었다. 소렌슨 장로는 우리 교회의 절대적인 원리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이 교회를 회복하였으며, 물론경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약이며, 요셉 스미스 이후의 대관장은 모두 이 교회에 관한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였으며, 말라기 3장 7-11절을 인용해 모든 회원들은 정직한 십일조를 내도록 권고했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으며, 더불어 해이해진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사 제공: 김정일 형제)



스테이크 대회가 끝난 후 함께 모인 소렌슨 장로 부부와 안양 스테이크 부장단

대구 스테이크

지난 3월 16, 17일 양일간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의 감리로 전반기 대구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첫 모임인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소렌슨 장로는 가정의 단합과 신권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회 주제인 “참마음으로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하느니라”(모로나이서 7:6)는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소렌슨 자매가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말씀하셨고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더욱 굳게 가질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일요일 총회에서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는 “부모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성장하도록 보살피 주는 거두어지지 않는 부름”이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소렌슨 장로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이 이토록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의롭게 주님께 십일조를 바친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남은 생애 동안에도 십일조를 완전하게 바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 선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회원 선교 사업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부탁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5명의 형제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으며, 대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회원, 구도자들은 총 관리 역원과 지역 관리 역원의 영적인 말씀에 훌륭한 동기를 부여 받을 수 있었다. 때를 맞춰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는 성도들의 가슴을 더욱 축축히 적셔 주었다.

(기사 제공: 이은주 자매)

부산 스테이크

1996년 3월 16, 17일 양일간 부산 스테

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렉스 디 피네가 장로의 감리와 홍성주 스테이크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5:16-18)였다. 특별히 스테이크 행사에서는 7년 동안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던 홍성주 부장이 명예롭게 해임되고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으로 양기욱 형제가 부름 받았다.

온천 와드 합창단의 영적인 찬송을 부른 후, 말씀 순서에서 홍성주 부장은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7년 동안 봉사한 것이 이제 주님 보시기에 겨우 나무 한 짝을 지고 내려 온 머슴 같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부름이나 계명에도 충실하겠다고 겸손하게 소감을 말씀하였다. 김명숙 자매의 간증에 이어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해임된 김상섭 형제(제2보좌)와 안경일 형제(제1보좌)는 봉사하면서 받은 영적인 느낌과 축복에 대해 간증했다.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의 보좌로 부름 받은 백상봉 형제(제2보좌)와 전영준 형제(제1보좌)는 이 복음 안에 참다운 행복이 있으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맡은 부름에 충실하겠다고 말씀했다. 또한 새로 부름 받은 양기욱 스테이크 부장은 접견할 때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을 느꼈지만, 이 부름이 바로 하나님으로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간증했다.

한편, 부산 선교부의 허드 부장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 할 것에 관해,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는 신권의 의무와 회원의 의무에 관해, 그리고 피네가 자매는 핑클리 대관장의 방향을 맞아 그가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였다. 피네가 장로는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전하며, 서로에게 비판적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였다.

이 번 대회에서 김용원, 양승희, 김대원(이상 광안 와드)형제와, 이현주(학성 와드), 김용주, 황재연, 이재일(이상 방어진 와드)형제가 장로 신권을 받았으며, 김남수 형제(방어진 와드)가 대제사에 성임되었다.

(기사 제공: 이희숙 자매)

영동 스테이크

96년도 전반기 영동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3월 16,17일 양일간 서희철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스테이크 센터(둔촌, 마천 지부)에서 개최되었다.

토요일 신권 지도자 및 모든 역원을 위한 모임에서는 경건한 성찬식 표본을 교육한 정윤 형제와 세 가지 목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에서 최남용 부장(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은 행복의 극치는 이웃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주장훈 형제(둔촌)는 청소년으로서 역경을 극복했던 간증을 전했으며, 세미나리에 충실히 학교 생활에 길잡이가 되었다는 정희영 자매(마천), 구원을 공포하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아빈아다이의 말을 인용한 김순국 형제(영동), 진실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체험을 전한 신명화 자매(성남 중앙), 물문경을 읽고 회개의 눈물로 밤샘을 했다는 구승훈 형제(성남 중앙 지부장), 감독직을 거절하고 일요일 물가에 갔다가 온몸의 마비 증상으로 목숨을 잃을 뻔 했다는 여운경 형제(성남 와드 감독)의 간증은 대회 참석자들의 신앙을 점검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고등 평의원인 조양호 형제는 ‘여성 동아에 인터뷰한 기사와, 교양지 ‘샘터’에 기고한 글에 대한 독자들의 반향(反響)으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훌륭함을 다시 알게 되었다고 간증했으며, 선물 받

은 물몬경을 읽고 개종했다는 김영선 자매(성남)는 남편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준 복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일요일 총회에서 이근순 자매(잠실)는 가정사로 조기 귀환했던 성전 선교사로의 임무를 다시 부름 받아 임기를 마친 후 가정과 마음에 평정을 찾은 경험을 전했으며, 김은영 자매(서초)는 허약한 신앙을 키워 작은 씨앗이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김 자매의 부군인 최승국 형제(서초 와드 감독)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세미나리에 열심히 참석하도록 도와줄 것을, 권영숙 자매(영동)는 세상의 지위가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까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관해, 그리고 김만주 형제(영동 와드 감독)는 취직을 위해 면접을 준비하듯이, 주님 앞의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간증을 전했다.

한편,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최남용 형제는 정부에서 과음, 음주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서 보듯, 교회의 가르침이 이제 세상에서도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서울 서 선교부의 스웨인 선교부장은 육체적 비만은 염려할 만 하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데서 얻는 영적 비만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했다.

서희철 스테이크 부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마음은 깨끗할 수 없는 데, 현재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느라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 두자고 말했다.

이 번 대회에는 6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박상원 형제(천호)가 대제사로, 최한태(성남 중앙), 최희근(천호), 주장훈, 송원준(이상 둔촌), 조규현, 정지호(이상 영동), 이용범(신장) 등 7명이 장로로 지지되고 성임되었다. □

(기사 제공: 고천석 형제)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광주 스테이크

지난 3월 23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제154주년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가 치루어졌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조길자 자매는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길르앗의 유향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말권고했고, 김현희 자매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 각자의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며 그물을 잘 돌보듯 자매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했다. 또한 김성숙 자매는 항상 경전을 상고하고 기도함으로써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으라고 말했다.

신출내기 부부의 결혼 생활 이야기, ‘하늘의 뜻이려니’라는 시낭송을 시작으로 평등 부부상을 수상한 부산 스테이크의 전용준, 임인숙 부부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임인숙 자매는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 부부를 축복하여 주셨고, 서로의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평등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용준 형제는 선교사는 신앙의 장미, 아내는 사랑의 장미, 아들들은 신뢰의 장미를 주었고, 서로 다른 면, 좋아하는 면을 공유하고자 노력한다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 후 부부가 함께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이 모임에는 신권 지도자 및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석했다.

(기사 제공: 박유미 자매)

부산 스테이크

지난 3월 22일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는 양기욱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1보좌인

김성숙 자매의 사회로 상호부조회 154주년 창립 기념 행사가 있었다.

말씀 순서에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이무정 자매는 상호부조회의 조직과 목표와 상징들에 관해 설명해 주었고, 양기욱 스테이크 부장은 상호부조회에서 부지런히 봉사하는 자매들을 보면 항상 희생하고,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어머니가 생각난다며, 앞으로 상호부조회가 더욱더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말씀을 하였다.

활동 순서에서는 그동안 각 와드의 자매들이 준비한 장기가 소개되었는데, 연산 와드에서는 ‘망향’이라는 합창곡을 들려주었고, 학성 와드에서는 성극 ‘솔로몬의 지혜’를, 신정 와드에서는 합창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천 와드에서는 ‘세계 패션쇼’를, 광안 와드에서는 북과 장구가 어우러진 민요 메들리를, 방어진 와드에서는 무용극 ‘I will follow him’을 그리고 수정 와드에서는 ‘각설이 타령’을 발표해 분위기를 한층 더 재미있게 이끌었다.

행사를 위해 모든 자매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와 모임의 분위기를 북돋았다. □

(기사 제공: 이희숙 자매)



창립 기념 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부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원들

역원 변경

• 부산 스테이크

스테이크 부장: 양기욱

제1보좌: 전영준

제2보좌: 백상봉

(전임자: 스테이크 부장: 홍성주

제1보좌: 안경일

제2보좌: 김상섭)

• 전주 스테이크

정주 지부장: 강종남

(전임자: 황인상)

김제 지부장: 서종원

(전임자: 채승원)

• 강릉 지방부

주문진 지부장: 신기현

(전임자: 김준)

• 천안 지방부

서산 지부장: 이명식

(전임자: 원복상)

• 부산 서 지방부

구포 지부장: 안재석

(전임자: 이상기)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186기

(1996년 3월 25일~4월 12일)

〈성 명〉	〈출 신 지〉	〈선 교 부〉
강소영 자매	인천S/만수W	부산 선교부
권상률 장로	서울 북S/원당B	부산 선교부
김계연 장로	마산S/진주W	서울 선교부
김미자 자매	대구S/구미B	서울 서 선교부
김선미 자매	청주S/유성B	서울 서 선교부
박갑순 자매	부산 서D/과정B	서울 선교부
신선미 자매	부산M/제주B	서울 선교부
이경선 자매	마산S/창원W	서울 선교부
이민태 장로	강서S/김포W	부산 선교부
이병무 장로	수원S/안성B	부산 선교부
임성혁 장로	서울 동S/도봉W	대전 선교부
임희진 자매	서울 동S/도봉W	부산 선교부
한영미 자매	청주S/삼성W	부산 선교부

S: 스테이크 D: 지방부 W: 와드 B: 지부 M: 선교부



앞줄 왼쪽부터: 강소영, 김선미, 이경선, 한영미, 박갑순
가운데 줄 왼쪽부터: 신선미, 김미자, 임희진
뒷줄 왼쪽부터: 임성혁, 이민태, 권상률, 김계연, 이병무